어린이 책꽂이

▲북풍을 찾아간 소년=주인공 소년이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되찾기위해 불의에 맞선다는 내용의 동화다.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소년은 북풍 때문에 오트밀 가루가 날아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오트밀 가루를 돌려받기 위해 북풍을 찾아 나선다.

〈시공주니어·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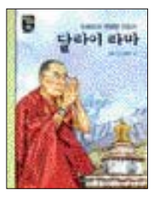
▲초등 한국사 생생교과서=초등학교 교과내용을 영역별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 기획한 시리즈. 한국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를 뽑아 시대별로 정리했다. 〈스콜라·1만2천원〉

▲세상을 바꾼 100가지 공학기술 how=발명 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풍차와 물레방아에서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전을 앞당긴 기술들이 소개돼 있다.

〈한겨레아이들·9천500원〉

▲꼬물꼬물 세균대왕-미생물이 지구를 지켜요=미생물의 진화와 역사를 생생하면서도 재미있게 다뤘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반응에 대한 과정 등 딱딱한 내용들도 알기쉽게 설명돼 있다.

〈풀빛·9천500원〉



▲달라이 라마=티베트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 종교와 비폭력으로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달라이 라마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주니어랜덤·8천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지음

소설가 공지영이 자신의 '가족사'를 신문 연재 소설로 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 그리고 각기 성이 다른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가족사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여기다 첫 남편이 법원에 신문 연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의 의미도 필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이 녹아 있는 책이다.

저자는 작가의 글에서 "우리 가족이 남들의 기준으로 보면 뒤틀리고, 부서진 것이라 해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명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다는 것도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였다.

소설의 화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위녕'이다. 쿨한 성격의 여고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터라 소설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은 작품임에도 소녀 특유의 당돌하면서도, 유쾌한 문장들로 재미있게 읽힌다. 새 엄마와의 불화로 위녕이 '이건 건드리지 마. 여기서 너희 학비가 나오고, 우리 밥이 나와'라며 컴퓨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소설가 엄마의 집'으로 살러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집에는 아빠가 다른 동생 '제제'와 '둥빈'이 있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막딸이 아줌마와 엄마의 선배 시저마 아줌마 등 혈연이 얽히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도 등장한다.

위녕의 시선은 자주 '이 세상 모든 이혼한 사람의 대표선수로 뽑힌' 엄마를 향한다. 위녕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춤을 추는 엄마를 보며 '엄마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스스로는 불행하지 않은 것'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혹시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불행하다면 그건 엄마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위녕은 영화감독이었던 둘째 둥빈이 아빠의 죽음을 겪고, 엄마가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서점 아저씨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도 지켜본다.

소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지방 교대로 진학한 위녕이 다시 집을 떠나면서 끝난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라고 말하던 엄마가 준 가장 큰 선물인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 힘'을 갖고서.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실제 사람을 모델로 했지만 허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소설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유명했던 그녀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라는 괜한 호기심에 온전히 작품 속으로 몰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 없이 소설을 읽는다면, '사랑'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조금은 색다른 '가족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숲·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불꽃같은 삶 살다간 10인의 여성 조명

내 가장 소중한… 디터 분더리히 지음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시대에 앞서 갔던 여성들은 각종 편견에 맞서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후세는 그녀들을 선구자로 평가하며 그녀들의 불꽃같은 삶을 기렸다.

여성에 대한 전기 작가로 명성을 얻은 디터 분더리히가 쓴 '내 가장 소중한 작품은 나의 인생이다'는 600년 동안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10명의 여인들을 소개한 책이다.

책에서는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오를레앙의 잔 다르크, 진정한 학자의 길을 걸은 마리 퀴리, 지방의 재봉사에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 코코 샤넬, 위대한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 남자들과 동등한 삶을 살았던 시몬느 드 보봐르 등 친숙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투멘·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의 왕들 고전에서 길을 찾다

제왕의 책 윤희진 지음

우리나라 역대 제왕들 가운데 호문(好文)의 군주들이 적잖지만 대부분 국왕들의 독서는 통치철학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함이었다.

'제왕의 책'은 '왕과 고전'이라는 특별한 두 존재의 만남을 소재로 왕들이 어떤 책을 통해 치세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었는 지를 조명한 책이다.

조선건국의 터를 닦은 이방원은 이복동생에게 세자자리를 내준 뒤 개국공신인 조준이 추천한 '대학연의'를 읽으면서 울분을 달랬다. 태종은 왕으로 등극한 뒤에도 '대학연의'를 정치적 술수와 철권통치의 텍스트로 삼았다.

고종은 '조선책략'을 통해 국운을 고민했고 성종과 효종은 각각 '소학'과 '심경'에서 나라 다스리는 법을 찾았다. 〈황소자리·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서경식 외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지상의 모든 열망을 무화시키려는 듯 싸늘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언뜻 보기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은 쉽지가 않다.

'교양, 모든 것의 시작'(노마드북스)은 이 시대 지성인 3인의 강연과 대담, 그리고 사례들이 인용되면서 인문적 가치인 교양의 필요성과 이에 이르는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연 내용을 '교양'이란 주제로 집중시키고 있다. 독일어로 교양을 '빌둥(Bildung)'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학습과 지식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것, 개성 있는 인간이 자아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미국의 찰스 랭겔 하원의원은 징병제 부활을 호소했다.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한 발언이다. 그의 발의는 곧 402 : 2로 부결되고 만다. 자세히 살펴보면, 징병제가 폐지되고 지원병만으로 구성된 군대는 정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회적 약자의 모집 장소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의 꽃다운 생명들은 전쟁터에서 스러져 가고, 상위 계층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되기에 전쟁을 중계방송으로 보고 즐긴다.

이러한 불평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상류층인 정책입안자들은 반성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교양은 보편적 이성·인권·휴머니즘

그들에게 있어 전쟁은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이다. 베트남 전에서 반전 여론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알고 보면 중산층 출신 대학생들이 대거 징병되었던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모병제'라는 말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 이를 테면, '군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라는 정책적 대안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판단은 각자에게 달린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선택에 대해 저자들은 소수자인 타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사회적 차별은 단지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차별은 사회의 내부구조에 교묘하게 잠복되어 있어 또 다른 차별적 구조를 계속적으로 생산해 낸다. 현재 '특목고' 입시 부정이 터져서 각종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특목고'에 안간힘으로 매달려야 하는가. 그것은 '특목고'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대학 입시에,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는 차별적(특혜) 구조로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교 선전에 열을 올리며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실천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현명한 판단에 따른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나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남들이 선택해 줄 테니까"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많다면, '퇴폐적인 문화와 사유의 형태'에 해당한다. 승산이 없다 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고 저항도 없다면 애당초 '승산' 같은 것은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이성, 인권, 휴머니즘은 인문적 가치이자 교양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기계로 살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정글 법칙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인문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염 창 권

〈시인〉